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 광주시 중학교 중심으로

김민정* · 이성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An Analysis of the sta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hics awareness and Improvement

- Centered on the Middle School in Gwangju City

Min-jung Kim* · Sung-Joo Lee*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E-mail : tweety905@hanmail.net

요 약

컴퓨터 기술과 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맞게 된 정보사회는 인간 생활 전반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 온 반면에 윤리적 문제를 포함한 역기능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실태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관 형성이 되는 청소년기에 불건전 유해 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위협함으로써 심각한 도덕적 혼란과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광주시 중학생들의 정보통신 윤리의식을 살펴봄으로써 의식수준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위한 교육제는 물론이고 정부와 사회단체 그리고 학부모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Information society, introduced by the rapid progress of computer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brought us the comfort and prosperity on every aspect of human life. However, the adverse and harmful effects of it, including the ethics problems, turn out to be serious. Concerning these problems, purpose of this study is set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of ethics awareness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ince ethics awareness is required more urgently than ever in this era of technology. While adolescents, who will lead the future society, comprise the majority of internet usage population in our nation, they are exposed to the harmful and risky contents in the periods during which their world view would be established. Furthermore, the problems emerging in the progress towards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re jeopardizing the dignity and inherent value of human being, therefore causing the serious moral chaos and social problems. In this paper, the awareness level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Gwangju City has been investigated especially in the aspe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ased on the results, it is revealed that the efforts of government, social organization, students' parents as well as the education circles are essential. Also the proposal for improvement on the awareness level has been presented.

키워드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1. 서 론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와 지식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정보사회라 한다. 컴퓨터를 필수적인 생활 도구로서 자리 잡게 하였으며 그 이용 분야는 기업, 학교, 가정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컴퓨터의 보급과 관련 네트워크 망의 확대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또 다른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화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기능의 이면에 저작권 침해, 음란물 유통, 컴퓨터 바이러스와 해킹과 같은 사이버 범죄와 인터넷 중독,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같은 정보화의 역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시기에 이러한 불건전 유해 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위협함으로써 심각한 도덕적 혼란과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로 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정보시대가 인간의 모습을 한 바람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수준 높은 윤리의식을 지녀야만 한다[1]. 정보사회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과 기술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윤리적 문제에 있어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윤리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중학교 학생들의 정보통신 윤리의식을 살펴봄으로써 중학생들의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윤리 함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이론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연구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4장에서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생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고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본 론

II.1 정보통신윤리

정보통신윤리는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윤리는 처방윤리로서 정보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해주어야 한다.

둘째, 정보통신윤리는 예방윤리로서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수반될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숙고하고 예방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정보통신윤리는 변형윤리로 정보화의 역기능, 특히 사이버 공간의 무질서와 혼돈에 대한 반응으로서 출현한 것이므로 인간의 경험이나 제도·정책의 변형 필요성을 강조해야만 한다.

넷째, 정보통신윤리는 세계윤리로 국지적 윤리가 아닌 세계적 보편적 윤리가 되어야 한다.

II.2 정보통신 윤리교육 개념

정보통신 윤리교육이란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정보사회에서 책임 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데 필요한 윤리적 삶의 양식을 지니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3].

II.3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 활동범위는 전 세계를 하나의 환경으로 묶는 인터넷 지구촌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또 사회적 환경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2]. 이러한 환경변화는 새로운 정보사회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도덕적 규범 내지 정보윤리를 통해서 새 정보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정보윤리기준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정보사회에서 책임 있는 한 구성원으로 필요한 윤리적 삶의 양식을 지니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보윤리 교육이 견지해야할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4].

첫째,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기본교육(basic education)이다. 우리는 흔히 정보윤리교육은 도덕과나 컴퓨터 관련 교과에서 다루어야할 교육과정의 부수적인 한 분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교과나 교과 외 활동이 정보통신 윤리교육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므로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다루어져야한다.

둘째,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균형 교육(balanced education)이다. 균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정보통신윤리에 대하여 아는 것, 믿는 것, 행동하는 것의 조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 의미는 정보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공동체 교육(education for community)이다. 정보 사회의 도래에 따라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공동의 신념과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집합체 형성이 가능해진 반면, 인간 관계가 해체되고 개별적이고 고립적인 인간관계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전통적·가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올바르게 존재하는 방법을 동시에 가르쳐주는 교육이 되어야만 한다.

넷째,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다문화 교육이다. 우리는 공동체 교육을 통한 일치와 통일성뿐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을 통하여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을 강조해야만 한다. 국경의 장벽이 없는 가상공간에서 책임 있는 네티즌으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행동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다문화 교육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정체성 교육이다. 가상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와는 다른 사이버 자아의 형성이 가능하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자아와 인성의 고결함을 유지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정체성 교육이 되어야만 한다.

여섯째,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기술에 바탕을 둔 교육이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가르치게 될 학생들은 하이퍼미디어 세대로, 문자 세대인 우리와는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정보사회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설문은 광주광역시 소재의 중학교 중1,2,3학년 각 4학년 남·여 학생으로 총 385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실태를 조사하고 통계를 내어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3문항, 정보통신 환경 및 그에 대한 인식 8문항, 정보통신 윤리의식 14문항, 정보통신 윤리의식 확립 방안 7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정보통신 환경 및 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인터넷을 집에서 주로 이용하였으며, 하루 평

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1~2시간 미만 사용하는 학생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하루 평균 인터넷을 많은 시간 이용하였다.

인터넷 이용 용도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였으며 거의 오락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용도를 보면 남학생의 38.5%가 게임이었고 학습이나 정보 습득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은 극히 낮아 인터넷은 학습도구이기 보다는 오락기구임을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속 경험은 남학생(84.4%)이 여학생(32.3%)보다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 본 경험이 많았으며, 음란물 접속에 대한 인식에서는 음란물 접속에 생각해 본적이 없는 학생이 49.9%로 가장 많았으나, 상당수의 학생들이 음란물 접속이 성적 호기심 해결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남학생 중 84.4%가 음란물 접속을 경험하였고 음란물 접속에 대한 인식에서도 좋지 않으므로 접속해서는 안 된다 22.3%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낮은 성윤리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쉽게 음란물을 접속할 경우 왜곡된 성의식으로 성 비행으로까지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속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보편화되어 있으며 낮은 윤리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윤리적으로 옳지 않으므로 해서는 안된다 74.0% 인식하였다. 정보사회에서 익명성을 방패로 삼아 무책임한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하여는 많은 청소년들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의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정보화 역기능 중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개인 정보 유출 및 도용이 심각하다 3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이버상의 사생활 침해 22.1%, 게임중독 14.5%,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7.5%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네티켓 준수는 인터넷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식하였고 인터넷에서 통신 언어 표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인터넷 사용 시 자기존중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ID 사용 시 신중한 행동에 대해 그렇다 34.8% 대화방에서 본명 사용의 거리낌에 대해 보통이다 35.6% 친구끼리 ID 공유의 부적절함에 대해 그렇지 않다 26.8% 게시판에 비방글 게시자 추적 및 복수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에 대해 보통이다 30.1% 채팅 시 욕설을 하고 접속을 끊는 상황에 대한 불쾌감에 대해 매우 그렇다 42.1%로 나타나 인터넷 사용 시 자기존중감이 높았다.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의 이용 가치나 효율성에만

매달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가 쉽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데 좀더 중점을 두어 건전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인터넷 사용 시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자신을 밝히지 않는 익명의 E-mail 사용에 대해 매우 그렇다 35.8% 타인이 제작한 정보의 무단 사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33.0% 인터넷상에서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 사용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은 보통이다 27.8%로 학생들은 인터넷 상에서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 사용에 대해 그다지 높은 인식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인터넷 사용 시 책임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정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 사회에서는 익명성을 이용한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많이 발생할수록 그 피해는 모두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사용 시 정의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채팅 시 종료인사 없는 접속 차단에 대해 보통이다 24.4% 대화방에서 특수문자, 기호 도배 기술에 대한 숙지 및 사용 정도에 대해 보통이다 27.8%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 복사 및 타인에게 고지 허용성에 대해 그렇다 45.5%로 인터넷 사용 시 정의감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윤리의식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성함양 및 가치관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교육 활동에서 함께 이루어져야만 하는 생활 교육으로 시급히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윤리의식 확립 방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학생이 74%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학교에서 받은 학생이 43.6%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50.1%로 가장 많았고, 가정 15.6%, 사회단체 17.7%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적절한 실시 빈도는 한달에 한번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38.4%, 정보통신 윤리교육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점은 개인 정보의 오·남용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3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란물 유통문제 17.9%, 바른 언어 사용 13%,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12.2%, 지적재산권 침해 9.9%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고취를 위해 가장 네티켓 교육이 필요하다 2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생활 침해의 보호 방법 22.1%, 컴퓨터 범죄 관련 내용 15.3%,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는 생활 습관 11.9%, 정보통신윤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9.9%, 사이버 폭

력 대처 방법 9.6%, 불건전한 정보에 대한 대처 방법 2.3% 순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첫째,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성적 호기심 해결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중독되지 않도록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음란물에 대한 호기심은 끝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므로 교사는 그 폐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건전한 인성 교육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용 시 책임감과 정의감이 높지 않았다. 정보화 사회에서 일반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교육 즉, 책임감, 소유권, 자율성, 정의감 등과 같은 개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은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고취를 위해 네티켓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보통신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윤리강령이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리적 원칙과 구체적 행동규범 및 자율적 규제 장치를 갖춘 윤리강령이 하루빨리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활용하는 작업에 더 많은 사회적, 제도적 관심이 요구된다.

넷째, 상당수의 학생들이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보통신 윤리함양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외에 중요한데 학교교육과정에서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특정교과목에서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과정은 인터넷의 본질적 개념을 학습시키는데 주력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유해정보, 위험정보, 불법정보를 접했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여 차단하거나 차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정보사회에 맞는 합리적 윤리 기준과 가치관 정립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추병완,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 백의, p. 46, 1999.
- [2] 이창후, "정보윤리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 [3] 추병완, "청소년을 위한 정보윤리교육의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덕윤리교육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발표 논문, 2001.
- [4] 추병완,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 백의, p. 189-192, 1999.